“목적사업 일반처럼 세제혜택 강구해달라”

14일 교구본사주지협의회서

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장 정념, 월정사 주지)는 7월 14일 구례 화엄사에서 제46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24교구본사 중 19개 교구본사가 참석했다.

조계종의 분담금 제도 개편에 맞춰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정념 스님은 “분담금은 공정하게 형평성을 고려해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교구본사에서 목적사업을 진행할 시 일반사회의 세법과 같이 분담금에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가자 감소에 대해 지방승가대학을 중앙승가대학의 분교로 인정해 교육부 인정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한편, 회의에서는 지난 11일 임명된 사업부장 각운 스님의 건축설계사업소 개설 등의 사업소개가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불교 태고종 종단협 회원 자격 회복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7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불기 2560년 제2차 이사회에서 태고종 자격 회복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태고종은 2015년 3차 이사회에서 회비 및 사업비 미납 등으로 회원종단 권리가 정지된 바 있다.

태고종은 4월 26일자로 미납회비 및 사업비 4420만원을 종단협에 완납했다. 이번 자격 회복 후 의전순서는 결의사항에 따라 부회장 종단 중 하위로 결정됐다.

태고종이 종단협 회원 자격을 다시 회복함에 따라 부회장으로 총무원장 도산 스님, 상임이사에 신임 총무부장 도안 스님이 선출됐다. 종단협은 이밖에 회의에서 불기2560년 봉축행사 보고와 실크로드 성지순례 및 상반기 사업 보고, 제1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준비보고 등을 진행했다. 제1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는 ‘천년을 이어온 법맥을 이어가자’를 주제로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박5일간 중국 절강성 설두사에서 열린다. 또 12월 21일 동지를 맞아 종단협 회원 종단 및 전국사암연합회가 여는 동지팥죽 나눔축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회비 체계를 개편해 분담회비를 인상키로 했다.

노덕현 기자

재정 확보 · 대중포교, 두 화두 타파 나선 조계종

사업부 11일 공식 출범, 문화사업단 및 신도시 TF팀도 구성

조계종이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과 포교 대중성 강화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은 7월 5일 일반직 종무원 인사에 이어 11일 사업부장에 각운 스님을 임명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

수익사업 전개…영리법인 창설 과제

이번 조계종 조직개편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사업부 출범이다. 조계종 사업부는 분담금 중심의 종단 세입구조에서 벗어나 재정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다. 현재 사업부는 사찰 건축설계, 사찰순례버스 운영,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사업 아이템으로 잡고 논의 중이다.

종교계는 그동안 다양한 영리법인을 두고 재정 확보에 나서고 있다. 가톨릭의 경우 ‘평화드림’ 법인 내 5개 계열사를 두고 물품구입, 건축, 레져, 상조 등 사업을 진행해 1년에 2000억이 넘는 매출을 얻고 있다.

조계종은 2010년 포교원 산하였던 조계종 출판사를 주식회사로 전환, 사내 유통사업부를 두고 생수 및 달력 판매 등을 진행해왔지만 한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조계종이 2011년 재향군인회와 로열티 형식으로 진행한 상조사업도 재가입율 하락 등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조계종 내 사업부 개설은 이같은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펼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조계종의 본격적인 수익사업 진행을 앞두고 영리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다. 지난 3월 열린 205회 임시회에서도 사업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총무원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종회의원 스님들의 비영리법인인 종단의 수익사업 전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혜일 스님은 “하지만 본격적인 수익사업 전개시 영리법인 설립이 필요하다. 이 법인에서 종단에 수익금을 일부 희사하는 것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부는 14일 구례 화엄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장 정념) 회의에서 건축설계사업소 신설 및 이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양진수 사업부 사업팀장은 “비영리법인도 법인 설립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사업은 허용하고 있다”며 “불교발전과 종단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심도깊게 고민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포교 롤모델 찾기에 고심

이와 함께 조계종은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신도시포교에도 본격 나설 전망이다. 조계종은 5일 인사발령과 함께 조계종 문화부 내 독립조직으로 신도시 TF팀을 구성했다. 조계종은 2014년 3월 세종시 종교부지 5000평, 같은해 7월 위례신도시 3000평을 매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 4월 교계 출입기자단과의 만남에서 “산중에 머물러서는 불교 미래가 없다”며 신

가톨릭 ‘평화드림’ 벤치마킹
신도시포교는 모델 찾기 나서
템플스테이 대중성 강화 초점

도시 거점도량 불사를 진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두 곳의 종교용지 매입금은 총 337억 4700여만원이다.

조현우 재무부 행정관은 “현재 2019년 사용일자까지 분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미납없이 절반 이상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과제는 대규모 불사인 만큼 적합한 신도시 포교 모델을 찾는 일이다. 조계종은 4월 종무회의에서 하반기 구체적인 불사계획을 세울 ‘세종시 전통문화복합센터 건립추진위’를 발족키로 한 바 있으며 현재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도시TF팀 팀장이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일본불교계의 신도시포교 현장을 답사하는 등 본격적인 불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템플스테이도 대중적인 변신 모색

불교문화상품을 개발하고 템플스테이를 주관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도 대규모 인사 단행과 더불어 조직을 개편했다. 국내외 행사와 연계해 템플스테이를 알리는 한편, 패밀리 브랜드 ‘아생여당(我生如堂)’의 대중적 변신과 사찰음식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7일자로 인사를 단행하고, 기존 2부7팀이었던 조직을 2부8팀으로 일부 개편했다. 개편 이전과 바뀐 점은 기존 홍보/마케팅팀에서 마케팅팀 독립, 문화진흥팀 해체, 사찰음식체험관 운영팀 신설 등이다. 문화진흥팀 업무는 홍보팀과 마케팅팀이 나눠 흡수했다. 이 중에서 마케팅팀의 독립이 눈에 띈다.

마케팅 분야를 별도 조직으로 구분한 배경은 문화사업단이 현장중심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홍보와 마케팅이 한 팀에서 이뤄지다보니 이미지 홍보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직접적인 영업에 소홀했다는 성찰에 따른 것이다.

김한일 문화사업단 총무팀장은 “그동안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홍보 등은 원활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홍보와 마케팅이 같이 묶여있어 실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좋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마케팅팀이 다양한 국내외 행사 주최 측과 연계해 저명인사들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템플스테이의 힐링콘텐츠를 부각시키기 위해 2014년 출시한 패밀리 브랜드 ‘아생여당’의 이미지 변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생여당은 ‘아아(我我)’ ‘생생(生生)’ ‘여여(如如)’ ‘당당(堂堂)’ 등 네 가지 템플스테이로 나뉘며 각각 위로 · 건강 · 비움 · 희망을 의미한다.

문화사업단장 성효 스님은 “상품개발과 콘텐츠 다양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로써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재미요소가 있고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익숙한 표현을 찾아야 한다. 브랜드 이미지 변화를 위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사업단은 이외에도 사찰음식체험관 운영팀을 통해 전문적인 사찰음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해 불교문화 저변확대와 조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노덕현 · 윤호섭 기자

“4대강 되돌리는 일… 우리의 사명”

불교환경연대, 4대강 100일 수행길 회향

4월 3일 영산강서 출발해 금강, 낙동강, 한강까지 100일에 걸쳐 4대강을 두 발로 걸어온 불교환경연대가 순례길을 마쳤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7월 11일 서울 종로구 우정공원서 ‘4대강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 회향식 및 한강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엔 순례단장 법일 스님과 부단장 중현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을 비롯해 100일 순례에 참가했던 불교환경연대 회원 20여명이 함께했다.

법일 스님은 “많은 생명들이 썩은 강물로 생명을 잃었고, 생태계는 흐트러졌다. 그 강을 다시 되돌려 놓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란 생각으로 앞으로도 4대강 되살리기 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지현 스님은 “누구나 마음먹긴 쉬워도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100일 동안 꿋꿋이 4대강을 걸어온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불교환경연대는 7월 11일 서울 종로구 우정공원서 ‘4대강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 회향식 및 한강 천도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광주전남환경연대 행법 스님이 헌화하는 장면.

행사는 자애경 합송에 이어 발원문 낭독, 천도재, 삼배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불교환경연대 회원들은 자정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버드나무 가지와 한강 발원지서 받아온 물을 제단에 올린 뒤 의식을 마무리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7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4대강 100일 수행길 보고회 및 임원 취임식’을 거행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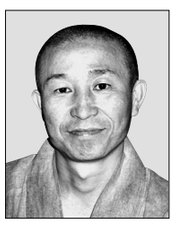
화쟁위, 4기 위원단 구성… 지홍 스님 외

흥선 스님 · 조성택 교수 등 20명… 7월 19일 위촉

조계종 화쟁위원회(이하 화쟁위)는 오는 7월 8일 3기 화쟁위원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4기 화쟁위원회를 구성했다.

4기 위원단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3기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 원주 성불원장 현강 스님,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혜조 스님, 김용숙 아줌마는나라의기둥 대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황도근 상지대 한방의료공학과 교수 등 20명이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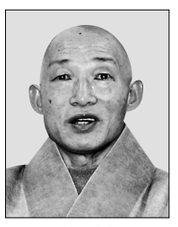
4기 위원단은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는 8월 후 하반기 활동으로 △2016년 화쟁도서 독후감 공모전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공개 토론회(8월 18일) △화쟁사상 세미나 △화쟁 실천 입문 과정(10월 중) △불교와 전태일 사상 세미나(10월 28일) △평화로운 집회문화 형성을 위한 국민 토론회(11월 중)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법 스님



지홍 스님



흥선 스님



조성택 교수

이밖에도 지리산댐 협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사회적 대화모임 등 계속사업도 진행한다.

한편 위촉식은 7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진행됐다. 4기 화쟁위원장은 이날 위촉식 후 진행된 28차 회의서 선출됐다. 〈차주 상보〉

박아름 기자

津寬寺 會主 無爲堂 眞觀스님의

永訣式 奉行에 대한 感謝의 말씀

귀의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회주이신 무위당 진관스님께서 지난 7월 3일 입적하시어 7월 5일 진관사에서 법기문중장(法起門中葬)으로 영결식과 다비식을 엄숙하게 봉행하였습니다.

불연을 따라 지극한 인연을 맺으셨던 제방의 큰스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부대중께서 임우(霖雨)에 먼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깊은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한 분, 한 분께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우선 지면으로나마 먼저 인사 올림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스님 생전의 가르침을 더욱 받들어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불기 2560(2016)년 7월 7일

大韓佛教曹溪宗 元老 比丘尼 無爲堂 眞觀스님 法起門中葬 葬儀委員會 委員長 法喜 合掌

無爲堂 眞觀스님 門徒 合掌

四十九齋 日程

- 초재 | 7월 9일(음 6월 6일)
- 2 재 | 7월 16일(음 6월 13일)
- 3 재 | 7월 23일(음 6월 20일)
- 4 재 | 7월 30일(음 6월 27일)
- 5 재 | 8월 6일(음 7월 4일)
- 6 재 | 8월 13일(음 7월 11일)
- 49재 | 8월 20일(음 7월 1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진관사 향적당에서 올립니다.

매 재마다 큰스님 법문이 있습니다. (문의: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02-359-8410)

대한불교조계종 진 관 사